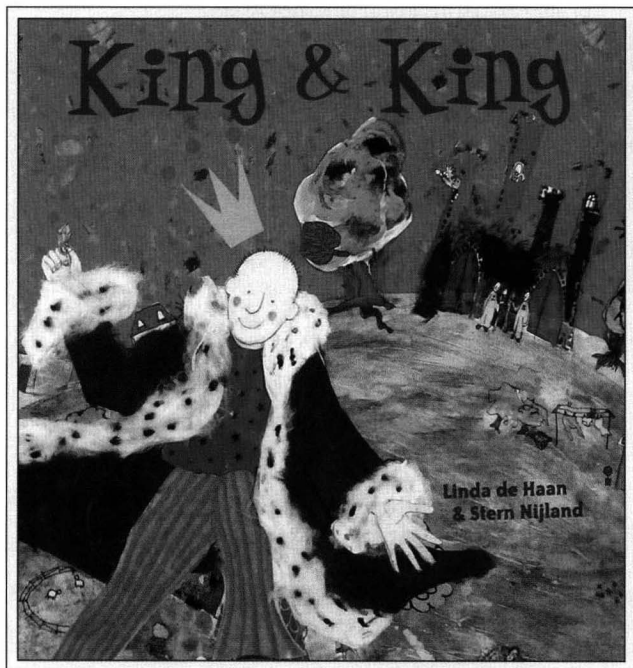


미국사회 달구는

동성결혼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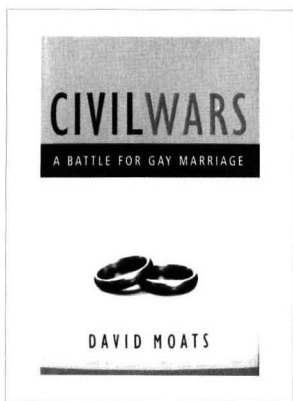
America

글 | 허선



한 왕자가 여러 공주들을 거부하고 결국 잘 생긴 왕자와 결혼한다는 이야기를 담은 어린이 그림책 《왕과 왕 King & King》이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왕과 왕》을 비치한 학교 도서관이 월링턴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이 책을 출판한 트라이시클 프레스는 경멸과 칭찬이라는 엇갈린 반응을 받았다.

러트랜드 헤럴드 논설위원으로 풀리처상을 수상한 데이비드 모츠가 직접 집필한 이 책은 명확하게 친동성결혼을 주장하는 통찰력 깊은 저널리즘 역사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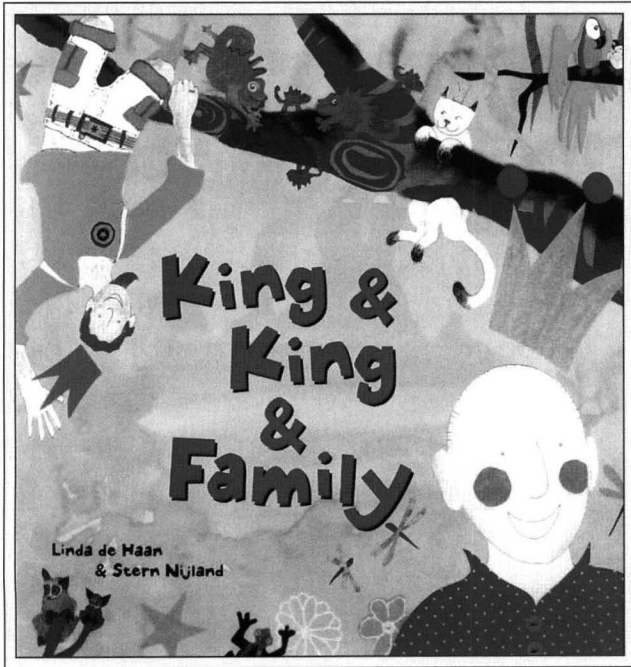


얼마 전 한국에서 남성 동성애자들의 공개 결혼식이 화제가 됐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다. 하지만 미국의 동성애자 결혼 문제는 거의 10년 동안 주정부와 연방정부 차원에서 논란이 되어 왔고 양쪽 대립이 폭발 직전까지 다다른 끝에 결국 동성결혼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반영하듯 곧 다가올 대선에서도 동성결혼은 많은 논란을 야기하며 출판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동안 잊혀졌던 미국 부대통령의 부인 린 체니가 쓴 레즈비언 소설 《자매들 Sisters》이 돌연 정치쟁점으로 부각되는가 하면 동성결혼의 이야기를 다룬 어린이책의 학교도서관 비치에 따른 거센 항의가 매스컴의 주목을 받고 있고, 이러한 논란을 계기로 출판계에서는 동성결혼을 다룬 책들이 연이어 출간되고 있다.

변화하는 법적 토대

1993년 하와이 대법원은 처음으로 이성에게만 결혼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얼마 뒤 주의회는 분명하게 남자와 여자의 결합만이 결혼으로 성립될 수 있다고 주헌법을 수정한다. 그후 몇 년 간의 논쟁 끝에 1996년 연방정부는 각주가 자체적으로 법제화할지도 모를 동성간 민법상 결혼에 대해 허가를 불허하는 ‘결혼수호법 The Defense of Marriage Act’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법안으로 소송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다. 1999년 버몬트 대법원이 동성간의 민사혼을 부인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을 때, 주의회는 이성커플에 대해 주어지는 동등한 법적권리를 동성커플에게도 부여하는 ‘시민 결합civil unions’이라는 새로운 범주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법적 싸움은 지난해 11월 동성결혼을 불허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매사추세츠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극적인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 대법원은 주의회에 18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동성결혼을 승인할 것을 판결했기 때문이다. 이어서 새로 선출된 샌프란시스코 시장 개빈 뉴섬은 직원에게 동성커플에게 결혼 증명서를 발급할 것을 지시했다. 개빈 뉴섬은 캘리포니아 법이 오직 남자와 여자만이 결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동성간 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샌프란시스코의 반차별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지난 2월 24일 조지 부시 대통령은 동성간 결혼금지를 제안하는 헌법 수정안을 지지한다고 발표해 이 문제를 둘러싼 뜨거운 논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meri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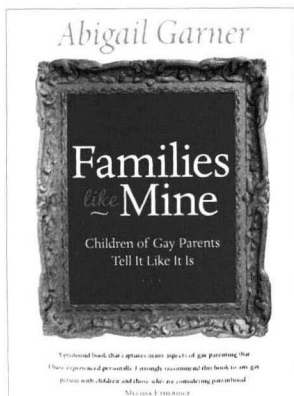


딕 체니 부대통령 부인의 레즈비언 이야기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고 도서관의 구석에 남겨졌을지도 모를 절판된 한 소설이 대통령 선거라는 시기성과 동성결혼에 대한 미국 내 관심 덕분에 다시 부각되었다. 현 부대통령의 부인이자 레즈비언인 메어리 체니의 어머니인 린 체니가 1981년 집필한 《자매들》은 미국 서부 개척시대를 배경으로 여성 해방주의를 매춘과 열정적인 레즈비언 사랑으로 그린 소설로 동성간 결혼금지안을 지지하는 딕 체니와 현 정부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 동성간의 결혼은 주차원에서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 온 딕 체니 부대통령은 최근 당의 정책에 따라 그 입장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레즈비언 딸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던 그의 동성결혼에 대한 뒤바뀐 입장에 대해 딸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조차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런 딕 체니에게

잊혀졌던, 아니 잊으려고 했던 아내의 레즈비언 소설 《자매들》이 현 정부의 정책에 정면 대치하는 존재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고조된 정치적 긴장감은 미국 펭귄그룹 계열 출판사인 뉴 아메리칸 라이브러리로부터 하여금 10년 전 절판된 린 체니의 《자매들》을 서둘러 재출간하도록 부추겼다. 그러나 린 체니는 빌 클린턴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등 거물 정치인들을 담당했던 변호사 로버트 바네트를 통해 이 책을 자신의 최고 작품으로 여기지 않는다며 재출간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곧 이어 출판사와 저자 간의 법적 대응이 예상되었으나 출판권을 소유한 뉴 아메리칸 라이브러리 측이 저자가 원치 않는 출판은 할 의사가 없다고 전하면서 재출간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흥미롭지만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동성 커플의 가족으로서 누린 행복감과 복잡성을 보여주고 있는 《아버지일 가너의 내 가족 같은 가족들 Abigail Garner's Families Like Mine》.



동성커플 다룬 어린이책으로 불붙은 논쟁

한 왕자가 여러 공주들을 거부하고 결국 잘 생긴 왕자와 결혼한다는 이야기를 담은 어린이 그림책 《왕과 왕 King & King》이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왕과 왕》을 비치한 학교 도서관이 월빙톤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이 책을 출판한 트라이시클 프레스는 경멸과 칭찬이라는 엇갈린 반응을 받은 일이 일어났다.

이 사건의 발단은 초등학교 1학년 올리비아 핫셀이 학교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 한 권 《왕과 왕》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올리비아의 부모 마이클과 토나 핫셀은 어떻게 학교 도서관에서 동성애와 이혼(왕자의 엄마가 자신의 아들이 남자 파트너를 찾도록 격려하기 위해 “내가 너 나이였을 때 이미 2번이나 결혼했다”고 말한다)에 대해 인

정하는 책을 비치할 수 있다고 레이첼 프리먼 초등학교 행정책임자를 비난하면서 자신의 딸을 전학시키고 다른 아이들이 이 책을 빌려가지 못하게 책 반환을 거부한 일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이 연합통신, CNN, ABC 등 미디어에 보도되면서 트라이시클 프레스는 홍수 같은 이메일을 받았는데 독려 보다는 적의에 찬 편지가 좀더 많았다고 한다. 이에 많은 기관 단체들이 출판사를 옹호하며 나서기 시작하였다. 그 중에는 람다문학재단 Lambda Literary Foundation과 표현의 자유를 표방하는 미국서적판매재단 ABFFE와 같은 단체들도 있었다. ABFFE 재단 이사장 크리스 피난은 “이 책이야말로 동성애와 같은 소재에 호기심이 있는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해 주고 있다. 더구나 제1수정조항(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이러한 책들이 단지 몇몇 부모들의 항의에 의해 학교 도서관에서 사라지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도서관연합의 지적자유사무소 책임자 베버리 베커도 “도서관은 지역사회 전체를 위해 봉사하는 곳으로 현재 우리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다루는 책을 소장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책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이러한 현 사회의 문제를 잘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왜 이 책이 도서관에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이 책의 소재가 현 사회에서 공개 토론중인 문제이며, 우리의 아이들도 이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이다”며 ABFFE와 일치된 의견을 피력했다.

블로나이동도서관을 통해 트라이시클 프레스에서 책을 출간한 네덜란드 저자 린다 데 한과 니즈랜드는 얼마 전 자신들의 책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에 대해 “현대판 동화를 만들기 원하던 자신들에게 《왕과 왕》은 그저 자연스럽게 탄생한 재미있고 행복한 이야기이며, 이 세상은 이러한 책이 필요하다”며 짙막한 소견을 발표했다. 이러한 논란에 힘입어 《왕과 왕》의 후속편으로 두 왕자 커플의 허니문과 그들의 딸 입양을 그린 《왕과 왕 그리고 가족 King & King & Family》도 초판 6,000부를 찍고 재판에 들어갔다. 한편 이 책에 대해 항의를 표했던 핫셀 부부는 학교에 대해 정식 고소를 접수하지 않고 있어 책에 대한 이의신청은 미결 상태로 남아 있다.

출판사들의 동성결혼에 대한 책들

동성결혼에 대해 높아지는 논란은 점차 출판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먼저, 올 상반기 처음 나온 동성결혼 타이틀은 버몬트 재판과 입법 드라마에 관한 이야기 《시민 전쟁 : 동성결혼을 위한 투쟁 Civil Wars: A Battle for Gay Marriage》이다. 러트랜드 헤럴드 논설위원으로 풀리처상을 수상한 데이비드 모츠가 직접 집필한 이 책은 명확하게 친동성결혼을 주장하는 통찰력 깊은 저널리즘 역사물이다. 최근 매사추세츠 판결에 의해 많은 관심을 끌고 있기도 하다. 다음으로, 동성결혼 관련 책들 중 가장 기대가 되는 책은 6월 출간 예정인 에반 울프슨의 《왜 결혼이 중요한가? Why Marriage Matters》이다. 저자 자신이 인권변호사로서 얻은 많은 경험을 토대로 동성간의 결혼은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사회의 행복만큼이나 필요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하와이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한 일로 미국 내 유명인사이기도 한 저자는 지난 몇 달 동안 동성결혼에 대한 TV나 신문보도에 수없이 등장한 인물이기도 하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 모두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야말로 동성결혼을 두고 가장 논란이 많이 되는 주장일 것이다. 이에 두 남성 동성애자를 아빠로 둔 딸이 쓴 《아버제일 가너의 내 가족 같은 가족들 Abigail Garner's Families Like Mine》은 그 논란 중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가너는 흥미롭지만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동성커플의 가족으로서 누린 행복감과 복잡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부모에 대한 사회적 저항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많은 부분에서 참고 살아야 했던 힘든 시간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동성결혼의 합법화 추세는 다만 미국만의 일이 아니다. 이미 유럽의 네덜란드와 벨기에에는 동성커플에게 결혼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고, 독일과 스위스에서도 법적 허가를 위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국내에서도 공개 결혼식을 치른 남성 동성연애자 커플이 혼인 신고서를 제출한 일에서 보듯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 출판계도 이에 발맞춰 민감한 사회적 현안에 대해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문화적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문**